

광주극장 '100년 영화관의 꿈' '영화 사랑' 시민과 함께합니다



올해 개관 87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100편의 영화를 관람한 관객에게 영화 1편을 직접 골라 함께 보고 싶은 이들과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첫번째 미션 완수자인 정애화(65·맨 오른쪽)씨가 영화 관람 후 자신이 초대할 연제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영화 간판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극장에 특별한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이 이날 관람한 영화는 '교실 안의 야크'. 주인공인 부탄의 교사가 고도 4800m에 위치한 외딴 벽지학교의 산골아이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날 상영된 '교실 안의 야크'는 영화 100편 관람에 의해 상영된 작품이 아니었다. 관람객이 '직접' 영화를 선정하고 함께 보고 싶은 이들을 초청, 영화를 감상했다.

1935년에 문을 연 광주극장은 85주년이었지만 지난 2020년 10월 '광주극장 100년, 나의 영화 100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광주극장이 1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기획이자, 관객들이 극장에게 100년 동안 함께 하자고 보내는 응원의 마음도 담기길 바란 기획이었다.

극장측은 100편의 영화를 본 관람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금까지 광주극장에서 본 영화 가운데 1편을 골라 관람하는 기획이었다.

이날 상영된 '교실 안의 야크'는 영화 100편 관람의 첫번째 완수자 정애화(65)씨가 추천한 영화였다. 퇴직 후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멘토 사업'에 참여, 연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그림책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꼭 보고 싶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선택했다. 자타 공인 광주극장 열성팬인 그는 '나의 광주극장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펴내기도 했었다.

이날 영화를 관람한 아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화간판실과 영사실도 둘러봤다. 김

전국에서 하나 남은 단관극장
2020년 85주년 프로젝트
'광주극장 100년, 나의영화 100편'
미션 완수자 정애화씨 추천
첫 영화 '교실 안의 야크' 상영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감상
완수 5명과 함께 월 1편 상영 예정

세원 양(연제초 3년)은 "영화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재미있었다"며 "영화 간판을 그리는 것도 처음 가봤는데 즐거웠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관극장으로 멀티플렉스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술영화 등 다채로운 작품을 상영해 주는 보물창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광주극장을 아끼고, 극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사랑으로 계속 영사기를 돌릴 수 있었다. 특히 후원회원 440명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명 한명 관객들의 소중한 마음을 깨달았죠. 극장에서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소소한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를,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이죠."(김현수 광주극장 이사)

처음에는 미션 달성자에게 기념품과 2035년 관람권을 증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니, 이만큼 특별한 선물도 없을 것이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한편을 선정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더불어 일반 관람객들 역시 100편의 영화를 본 이가 추천하는 영화라면 한번 쯤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교실 안 야크' 상영에도 일반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영화는 오는 31일 3시 10분 한차례 더 상영된다.

지금까지 미션 완수자는 5명이 나왔다. 30대~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전·현직 교사, 화가 등이다. 극장측은 추천영화를 유료로 대여해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 편씩 상영할 예정이며, 개관 100년이 되는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이어갈 생각이다.

광주극장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중이다. 광주극장을 소재로 한 그림책 '마음이 따뜻해지는 극장 이야기'가 발간됐고,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동료 가수들과 광주극장에서 촬영한 '버려내고 존재'라는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100년 영화관의 꿈"은 오래된 친구처럼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극장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민주당 대표 박용진·이재명·강훈식 3파전

예비경선서 본선 최종후보 결정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본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또 최고위원 후보로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후보(기호순)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호남지역의 유일한 주자였던 송갑석(서구갑)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호남 정치인의 민주당 지도부 입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이 세 후보가 본선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또 도종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김민석, 이동학, 강병

원, 박주민, 설훈 후보는 예비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킷오프' 됐다.

박용진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해야 이긴다. 혁신해야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포용하는 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후보는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동풍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기세를 몰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고 혁신을 통해 미래의 민주당을 열겠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 대표 후보 3인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동안 강원권, 경상권, 제주, 충청권, 호남, 인천, 서울·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정견을 알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인니 정상회담... "공급망·인프라·방산 전략적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첫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인프라·방위산업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목표를 공유한다"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전략적 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하다. 이는 우리 첨단산업의 중

요 소재"라며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지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미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에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 정상은 또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방침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교고 출제 오류 심각 내신 불신 부른다 ▶6면

복스 - '예술이 좋다 여행이 좋다' ▶14·15면

플랜B 없는 벤틀호 월드컵 관왕을까?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존재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신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